

“내 얘기 같아 연습중 눈물”

■ 뮤지컬 ‘터널’ 출연 남경음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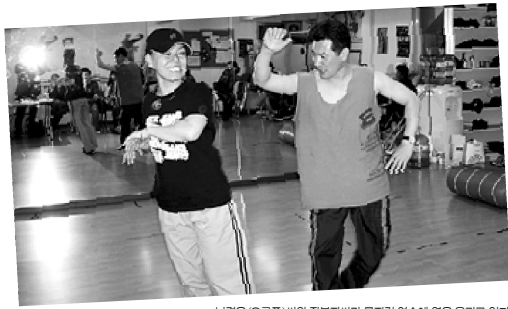
■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9일 서울 방배동의 지하 연습실에서 만난 남경음(46)씨는 뮤지컬 ‘터널’에 대해 “사춘기 방황의 시기를 재밌고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지닌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남씨가 극중 체육 교사로서 연기하는 이 작품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중정로 문화일보홀에서 공연을 예정. 크게 비웃었던 내역은 아니지만 남씨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특유의 카리스마가 흠뻑 떨어지 나온다.

관객의 뮤지컬 스타인 그가 무대에서 불과 서너차례 얼굴을 내미는 조연급 출연을 마다하지 않은 데는 남씨가 사연이 있다. 작품 내용을 들여보니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18세 주인공 ‘민구’ (이신성 분)는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흠녀머니와 함께 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성’에 대한 호기심 ‘가족과의 갈등’ 등 사춘기 특유의 통과리례를 겪어 나간다. 이런 ‘민구’의 모습에서 남씨는 어느덧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칠전 연습장면을 지켜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후배들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주책나서 싶어 얼른 자리를 뺐지요.”

남씨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민구’가 방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독백하는 장면. 시장에서 일던 바지를 대충 털고 방에 들어와 쓰그리고 잠든 모습의 어머니를 지켜보며 ‘민구’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만 보고 살았어... 돈 벌어야 다 아파 그러고, 염색 좀 하자... 손은 또 어떻게 꺼질까... (중략)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겨우 감정을 눌러왔던 남씨는 이 대목에서 ‘민구’가 단순히 혼자말을 할 게 아니라 엄마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대사는 것이 어땠는지라고 넌지



남경음(오른쪽)씨와 김복재씨가 뮤지컬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사람은 극중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로 서로 마음이 이질된다.

‘시장 일’ 어머니 밑서 사고뭉치 사춘기 ‘방황의 터널’ 실감연기 문화일보홀서 29일부터 공연

시 의견을 내놓았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안이었다. 남씨의 어머니 역시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며 약척스에 삼나리를 길러냈다. 재작년 12월 작고한 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평생 풍운아처럼 살았다. 장남이었던 남씨는 여의지 않은 집안 형편에 한때 사고뭉치 노릇을 푹푹히 하다,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같은 딸이’로 돌아왔다.

“중학교 다닐 땐 내가 까지 않은 학내사고는 없 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무작정 상경하려고 오모바이를 출제하고 가다 얼마 못가 할머니 한 분을 치고 말았어요. 그 사건 직후 아버지가 나를 불러다 허 놓고 꾸지람했다.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때 ‘이래선 안되겠다’고 크게 누우셨지요.”

이후 남씨는 바른생활 사나이’가 돼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역시 뮤지컬 스타인 동생 김복재씨가 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것을 다짐아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험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 이날 초 모인 ‘예술가’의 정한 어머니상을’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형제는 비로소 가슴속 풀어두었던 고맙고도 죄송한 마음을 속삭이듯 대신할 수 있었다.

현재 광주광역시 송탄엔터테인먼트와 주일교수를 맡고 있으며, 단국대에도 출강하고 있는 남씨는 학생들에게 끝날 ‘터널’을 틀리며 용기를 북돋는다. “경의를 마치고 수월이 있는 집으로 가다보면 터널 2개를 지나게 되는데, 힘을 다다 ‘인생의 터널’이라고 스스로 다짐하지요. 지금 당장은 어둡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영원한 ‘터널’은 결코 없으며, 언젠가는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마련이지요.” 김경민기자 zsrkim@unhwa.co.kr



“정통 드라마... ‘코믹’ 선입견 버리세요”

■ 제작·연출 맡은 서승만

■ 뮤지컬 ‘터널’의 제작 및 연출을 맡은 서승만(40·사진)씨는 작품이 정통 드라마임을 강조한다. 자신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터널’도 흑 코믹 뮤지컬로 여겨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물론 뮤지컬의 재미를 위해 중간 중간 가벼운 터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주제를 담기 위해 노력했

벌써 연극 3편 연출경력 순수창작물로 감동 추구

습니다. 뮤지컬 특유의 익살을 즐기면서도 막이 내려가는 순간 관객들이 가슴 찡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이가 없겠지요.”

지난 88년 MBC 개그콘서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서씨는 이미 ‘컬트’로 귀인시 있었 “요한 슈트라우스의 바퀴” ‘웃음 바이러스’ 등 3편의 연극을 연출했던 경험이 있다.

서울에선 무용과 출신인 그는 뒤늦게 국민대 공연예술학부에 편입, 연출을 본격적으로 전공하고 있다. 하대. 개그맨이라는 이미지에 과거 이 같은 ‘진지한 접근’이 그려질까 노심

초사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작품에 제작비를 대거 투입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공연의 전세로 옮길 정도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뮤지컬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종합예술입니다. 예전부터 이같은 작업을 무척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해외 유명 뮤지컬이 범람하는 세태에서 순수 국내창작 뮤지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인 되겠지요.”

뮤지컬 ‘터널’엔 서씨 이외에도 가수 겸 작곡가인 송시현씨가 음악, 재즈 안무가 강옥순씨가 안무를 맡는 등 각 방면의 베테랑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김경민기자

연결=이경민기자 charlee@

벽지 MURATEX
 031-983-1516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를 찾아서

문화일보·경희대 NGO 대학원 공동주최 특강

④ 세 살을 파먹고 있는 인간

‘환경’은 ‘나’의 일부다

■ 우리는 흔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지칭해주는 그 무엇 곧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며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생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나에게는 아니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 들어있어서 그들 또한 이것을 ‘나’로 느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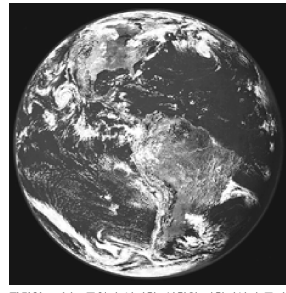
우선 간단히,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생각해 보자. 이것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이것을 잘 심으면 새로운 나무로 자라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른 나뭇가지는 어떤가? 이것 또한 아주 정교하게 처리하면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얼마만큼 마른 나뭇가지에게서 생명이 들어있다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대답할 수 없다. 같은 나뭇가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땅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살아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부러진 나뭇가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이것이 ‘이러려하면 여건 아래서 살아있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여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이 ‘살아있다’, ‘아니

르면 그러한 것은 존재하며, 이것은 태양 규모의 항성과 지구 규모의 행성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적절한 질서를 구축해 가는 정교한 순환체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존재를 ‘온생명’이라 부른다. 우리가 속한 온생명은 태양과 지구 그리고 대략 40억년의 기간을 통해 그 안에 형성되어 온 지구생태계로 위어지는 하나의 체계를 통해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온 생명체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또한 온생명 안에서 온생명의 일부로

생명의 나머지 부분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생존 단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온생명의 구분하여)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살아있다’에 있는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게 해준다고 잘못 생각해 왔으나,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살아있음’은 온생명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온생명 단위에만 있게 되는 것이다.



창조의 교수는 주역과 성리학, 실학의 과학사상과 물리학적 이론을 접목시킨 ‘온생명론’을 주장했다. 곧 지구도 생명이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려면, 이 ‘나’야말로 한 개체 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온생명이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이라 일컫어 온 것 또한 ‘나’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 몸 곧 온생명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 자기 활동을 도구이며 지원의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이 현대 환경문제의 본질이다. 내 몸의 일부가 내 몸의 다른 일부를 ‘환경’이라 생각하고 이를 벗어내고 있으며, 이를 잃어 버리고, 발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매해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정희의·서울대 명예교수